



[정치]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  
05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155.49 (-15.44)	코스닥 672.65 (-2.42)
금리 (미국 3년) 4.186 (-0.117)	환율 (원·달러) 1430.20 (-8.70) (9.30)

## 수출 많은 車·조선 ‘환차익’ 쏠쏠... 장기화 땀 ‘타격’

### 고환율시대 산업계 명암 <中> 수출기업

완성차업계 환율 10%상승시 부품 산업 마진 3.3%p 상승  
조선업계, 대금 달러로 받아 3분기 흑자전환 기록 기대감  
킹달러 장기화 땀 부담 확대  
원자재값 올라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확대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40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단기 실적에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길어질 경우 원자재 가격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수출기업 단기 실적 상승 효과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1450원대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완성차업체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2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올랐다. 이에 국내 완성차 1위인 현대차는 지난 2분기 매출 35조999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순이익에서 약 6000억원, 기아는 5090억원의 환율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기준 현대차는 전체 매출의 55%, 기아는 62%가 수출 물량이다.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의 마진은 평균 3.3%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3분기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는 조선업계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차 이익을 얻는 기업 중 하나다. 첫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짓는 선박의 평균 가격이 2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효자 선종인 17만4000m³ 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올해 1월 2억 1000만달러에서 지난달 2억 4000만달러로 14.3% 올랐다. 이 기간에 오른 환율을 고려하면 원화 환산 가격 상승률은 26.2%에 달한다.



조선시대 전국 왕궁 수문장 임명식

3일 오후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임명식 특별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문장 임명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인 1469년 수문장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문화재청이 재현해 낸 궁궐 문화행사다. 수문장 임명식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수문장 240여 명이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 모여 국왕 임명을 받는다 /뉴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업체들도 3분기 흑자전환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 장기화시 수출 기업 타격 불가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

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썩쓸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전경련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단가와 물류비 등의 생산비 증가 영향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2022 제약·바이오포럼’  
인류 ‘생명 연장의 꿈’  
장기 유사체 시대 열린다

오가노이드(organoid), 일명 장기 유사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인공으로 뇌, 심장, 간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기존 재생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SF영화에서처럼 노화나 질병으로 망가진 장기를 오가노이드로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도 머지않은 셈입니다.

바이오분야의 선진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오가노이드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은 이미 확보됐고, 손상된 장 조직이나 침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5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2022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국내외 오가노이드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이 가진 경쟁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 주 제 : 오가노이드(organoid), 장기 유사체 시대가 온다
- 일 시 : 2022년 10월26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축 사 :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선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이사장(축사 및 오프닝 스피치)
- 강 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석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조한상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2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 ‘킹달러’ 속수무책... 환은, 2번째 빅스텝 밟나

### 원화약세·금리격차 확대 12일 2연속 ‘빅스텝’ 예상

한국은행이 이번달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에선 오는 12일 금리결정 회의에서 2연속 빅스텝을 예상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 원

화값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또 한·미 간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8.9원)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거래일 연속 1430원대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높아져 가는 데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장중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

원화 가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 롤러코스터 타는 환율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넘어서다가 잠시 주춤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수준

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은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킹달러(달러 초강세)’를 주도하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FOMC가 기준금리를 종전 2.25~2.5%에서 3.0~3.25%로 0.75%p 인상하자 원·달러 환율은 크게 급등한바

있다.

문제는 향후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금리인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2%대 복구에 전념한다. 작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이전까지는 금리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미 달러를 움직이는가

장 큰 힘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며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 12월에 각각 0.50%p, 내년 2월에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해당 전제하에 4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은 1445원, 2023년 1분기 상승은 146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

메트로경제 구독료  
11월부터 올립니다.  
(2면 참고)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개천절 경축사 “세계 대변혁... 흥인인간·재세이화로 극복해야” /사진 뉴스스  
▲ 野, ‘김건희 논문 표적 의혹’ 증인에 “국감 출석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 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주장에 “국방부 어린이집 6명 이용”  
▲ 국토부, 하위기관 LH에 23명 차출... “마구잡이 차출” 지적



▲ 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 4년 연속 50% ↑... 전국 최고 수준  
▲ 민주 “국감,尹정부 문책의 시간... 오만·독선·불통 따져물을 것” /사진 뉴스스